

고구려의 염색문화 연구

장 현 주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The Study of the Culture of Dyeing in Koguryo

Hyun-Joo Jang

Full-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8. 8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teratures and the wall paintings of the ancient tombs of Koguryo in an effort to t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of dyeing in Koguryo. The research findings follow:

1. The colors that were in vogue in Koguryo are five cardinal colors (red, blue, white, black, and yellow) and compound colors, like purple and green. Those colors were used in some or all parts of the clothing and even on some parts of the body.
2. Some clothing of Koguryo as shown in the wall paintings were made with a single and solid color by dip dyeing method. But the majority of the clothing had a variety of patterns. Among the patterns, the geometrical dot pattern took the majority.
3. The dyeing techniques used in Koguryo were printing, yarn dyeing, embroidery, wax resist dyeing, drawing and painting. The development of yarn dyeing method, weaving with silk-threads dyed in various colors, enabled to produce Geum fabrics, which were used for the upper classes' clothing.
4. The esthetic features represented in the colors of Koguryo include the beauty of contrast coloring, preference for red, preference for geometrical patterns, and the harmony of yin and yang.

Key words: five cardinal colors(오방색), geometrical dot pattern(기하학적 점무늬), wax resist dyeing(납힐염), Geum(금직물)

I. 서론

고분벽화는 돌벽 또는 회를 바른 벽면에 인물, 사신, 각종 장식무늬를 그려 다양한 색상으로 채색한 것으로 구조와 벽화의 내용에 따라 인물풍속화, 사신도, 장식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인물풍속화에는 주인공의 가족, 시중드는 사람, 호위하는 남녀의 모습과 행렬, 사냥, 씨름, 전쟁, 무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성곽, 부엌, 마구간, 외양간, 우물 등 각종 건물도 함께 묘사되어 있어 이 시기 생활모습 및 복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인이 착용한 복식에 관해서 연구한 예는 많으나 선행연구는 복식의 형태 및 신분별 복식, 복식조형미를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¹⁾ 이 시기의 염색문화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예는 드물다.

인간은 의복을 입고 직물을 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술적 목적, 식별의 목적, 방균 및 약효성 효과, 그리고 미적표현을 위해서 채색하기 시작했다. 주술적인 목적이란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악귀 및 병마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주술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적색의 경우 주술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식별의 목적은 상류층, 하류층의 신분을 구별하거나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염료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방균성 효과는 예전의 염색이 대부분 천연식물염료로 이루어졌으며 식물염료의 대부분은 약효가 있기 때문에 각종 질환의 치료를 위해 염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장식적인 목적으로 염색하였다는 것이며 얼굴에 연지를 찍고 입술을 붉게 화장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구려 복식에 다양한 색상이 표현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염색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고구려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염색문화에 관하여 문헌 고찰을 한 후 고구려인의 복식에 사용된 주요 색상, 염색기법, 문양, 그리고 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실증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에서는 고구려 관련 문헌 및 백제, 신라 관

련 국내 문헌, 그리고 중국사서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실증적 고찰에서는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 복식의 색상판별이 비교적 용이한 인물풍속화로 한정하였으며 선행연구²⁾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색상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색, 퇴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분벽화를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선행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혀둔다.

II. 고구려 염색문화에 관한 문헌적 고찰

고구려에서는 수렵생활을 하면서 동물의 가죽, 털 등을 이용하였으며 농경생활을 하면서 의복소재를 직접 생산하여 제직 및 염색을 하였다. 고구려의 염색문화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고구려 복식에 주로 사용된 색상은 자색, 백색, 청색, 적색, 황색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왕의 복식에는 오색찬란한 색상의 견직물을 사용했으며 의복의 색상은 높은 신분일수록 화려하며 자색바탕에 무늬가 있는 직물을 가장 귀한 자가 사용했다. 관모의 색상은 높은 신분부터 백색, 청색, 적색의 순으로 사용했으며 때로는 가장 귀한 자는 자색의 관모를 사용했다. 그리고 선염기법에 의한 금 제직이 가능했으며 장식기법으로는 자수법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고구려와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백제와 신라의 염색문화에 관한 기록이다.

<표 1>과 <표 2>를 보면 삼국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서로 유사한 색상의 의복을 착용했으며 자색의복을 가장 귀한 자가 사용했다는 점, 고급 견직물로 알려진 금직물을 생산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리고 삼국 모두 다양한 기법으로 염색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고구려에서는 자수법, 백제에서는 채회기법, 신라에서는 헝헝염과 자수법이 특히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고구려 염색에 관한 기록

기록 내용	출처
고구려 국왕은 오색찬란한 비단옷을 입고 금테 두른 白羅冠을 쓰고 흰가죽 띠를 사용. 대신들은 靑羅冠을 사용, 그 다음 급의 관료들은 絳羅冠을 사용했으며---서인은 褐衣를 착용했다. →五色으로 염색. 신분에 따라 백, 청, 적색 사용했음. 서민은 거친 모직의복 착용했음.	<구당서> 東夷列傳 고구려조 <신당서> 고구려조
고구려 사람들은 금이라는 비단을 제작한다. 자색 바탕에 무늬놓은 것이 으뜸이고 다음은 五色錦, 그 다음은 雲布錦이 있다. →자색이 귀한 자의 색 →오색금, 운포금, 자지혈문금, 염색직물, 청포를 생산하였다. →침염 및 방염(교힐, 협힐) 등의 기법 사용. 선염기법 사용했음.	<한원> 고구려조
錦과 繡를 고구려 지배계층에서 사용했다→錦은 선염한 후 직조에 의해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선염의 가능성을 시사, 자수법 발달했음.	<삼국지> <주서>
귀한 자는 관에 紫羅를 사용하고 금은 장식, 大袖衫, 大口袴 입고 素皮帶를 두르며 黃草履를 신는다. →자색은 귀한 자의 색상	<주서>
공공모임에는 모두 錦繡(금직물, 자수) 의복을 입고 금은 장식을 한다.→자수법 발달했음.	<후한서> 고구려조 <남사> 고구려조 <북사열전> 고구려조
남자는 소매가 긴 적삼에 통 넓은 바지, 흰 가죽띠, 노란 가죽신을 신는다. 부인은 치마와 저고리 입는데 옷자락, 소매에 선을 두른다. → 황색, 백색 사용했음.	<주서> 異域列傳 고구려조 <북사열전> 고구려조 <수서> 東夷列傳 고구려조 <신당서> 東夷列傳 고구려조

<표 2> 백제·신라의 염색에 관한 기록

국가	기록 내용	출처
백제	관인의 의복에 비색의 그림을 그렸다. →채화 기법 사용함.	<구당서> 동이전 백제조
	왕은 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백대, 흑피혜를 착용했다. →왕이 자색, 청색을 사용함.	<구당서> 백제조 <신당서> 동이전 백제조 <삼국사기> 본기 권 24 백제본기
	서인들은 비색, 자주색 사용 할 수 없다. →비색, 자색이 상류층 색상, 신분에 따라 색상 지정함.	<구당서> 백제조 <신당서> 동이전 백제조
	16품관까지는 緋衣사용, 평인에게는 緋衣를 금지. 공복 품계에 따라 자대, 조대, 적대, 청대, 황대, 백대를 사용했다. →자, 조, 적, 청, 황, 백색 순	<구당서> 백제조 <주서> 異域列傳 백제조 <수서> 東夷列傳 백제조
고이왕 27년(260)에는 옷의 색이 1-6품은 자, 7-11품은 비, 12-16품은 청으로 하였다. →자, 비, 청색 순	<삼국사기> 권 24 백제본기	
신라	신라인이 素絹에다 그림을 그려 의복에 염채를 했다. →繪기법 발달함.	<북사> 신라조
	사녀 의복의 협힐을 금한다. →협힐염 기법 발달함.	<북사> 신라조
	법흥왕대 4색 공복제도를 진골이상은 자의, 6두품은 비의, 5두품은 청의, 4두품은 황의로 제정했다.→자, 비, 청, 황 순	<삼국사기> 색복조
	의복은 대개 고구려, 백제와 같은데 복색(조복)은 素를 숭상한다.→소색을 선호함.	<수서> 신라조 <구당서> 신라조 <북사> 동이전 신라조
진골대등은 겉옷과 등거리, 바지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라직을 금하며 여자의 겉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라직을 금한다.	<삼국사기> 권 33 잡지복색	

국가	기록 내용	출처
신라	→진골이상 급 관리들은 모직 옷과 수놓은 비단옷을 착용함. →모직에 염색가능함.	
	말머리 장식을 삼실을 사용하되 색깔은 붉은 색과 진한 붉은 색, 푸른 풀 색과 짙은 풀색으로 한다. →선염의 가능성을 시사	<삼국사기> 권 33 잡지거마
	진골남자의 안장길마에 자단과 침향을 금하며 6두품, 5두품, 4두품과 평민들은 자단, 침향, 회양나무, 헤나무, 산봉나무를 금한다. →식물성 염료를 사용해서 염색했음.	<삼국사기> 권 33 거마

Ⅲ. 고구려 염색문화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고구려의 염색관련 기록 및 고분벽화자료를 토대로 고구려 염색문화를 색상, 문양, 염색기법, 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은 고구려 염색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분 벽화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소색(백색) 등이며 신분과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했다. 왕을 비롯하여 귀족계층에서는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등의 유색의복을 사용했으며 서민들은 자연 그대로의 색상인 소색 및 백색의복을 주로 착용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분벽화 및 고분출토품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염색문화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유색의복이

<표 3> 고구려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고분벽화 자료

지역	고분명칭	시기	위치	복식 자료
집안	오회분 4호분	6세기	길림성 집안현	왕족 및 왕족부인 의복
	장천 1호분	6세기	길림성 집안현	남녀시중, 귀부인, 기마부사, 무용수 의복
	무용총	4세기말~5세기초	길림성 집안현	수렵, 무용수, 왕족의복
	각저총	4세기 말	길림성 집안현	귀족부인, 평민 여자 의복
황해도	삼실총	4세기말~5세기초	길림성 집안현	남녀귀족 및 시중 의복, 사슴
	안악 3호분	4세기중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	남녀 귀족 및 시중 의복
평안도	안악 2호분	5세기말~6세기초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남녀 귀족 및 시중 의복
	동암리 고분	4세기 후반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남녀 의복, 관모
평양시	덕화리 고분	6세기 전반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남녀 의복
	개마부덤	6세기	평양시 삼석구역 노산리	남녀 귀족, 무사의복
남포시	감신고분	4세기 전반	남포시 와우도구역 신령리	남녀 의복
	덕흥리 고분	5세기 초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	남자 귀족 및 시중 의복
	수산리 고분	5세기 후반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	여자 귀족 및 시중의복
	쌍영총	5세기 말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남녀 귀족 및 공양인의 의복

1. 주요 색상

백제 및 신라에서는 관식, 대색, 의복 색으로 관등과 준비를 구별하고 있으나³⁾ 고구려에서는 의관제의 규정에 관한 체계적인 기록이 없어 단편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기록을 통해 삼국시대 각 나라의 복색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삼국은 비교적 유사한 색상의 의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삼국시대 남녀의복에 사용된 대표적인 색상은 자색, 비색, 청색, 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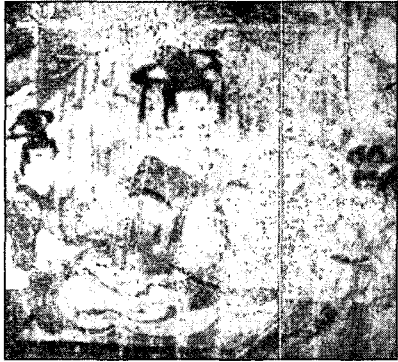
더욱 광범위하게 입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색상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색

자색은 삼국 모두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자의 의복에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 주인공 및 귀족층의 의복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자색은 왕을 비롯한 상류층 의복에 주로 사용한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복 중에서는 하의류 보다 상의류 즉 저고리 및 포류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경우<그림 1> 이외에도 의복의 깃, 수구 부분 등의 장식 부위에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 외에도 <그림 4>와 같이 귀족층을 모시고 있는 비교적 낮은 계급에서도 적색을 사용한 예가 있다. 안악 3호분의 시녀, 덕흥리 고분의 남녀 시종 의복의 전체 및 장천 1호분 문지기 및 안악 3호분



안악 3호분 부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 I, p. 39.



각저총 귀부인,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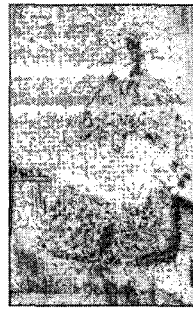


무용총 귀족,
한국의 복식, p. 11.

<그림 1> 자색이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예



무용총 귀족,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33.



각저총 귀부인,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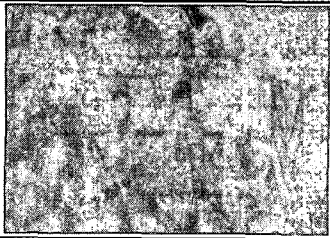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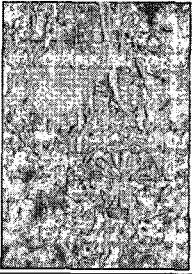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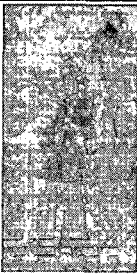

<그림 2> 자색이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예

2) 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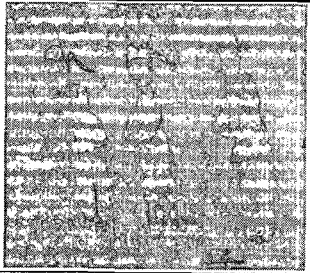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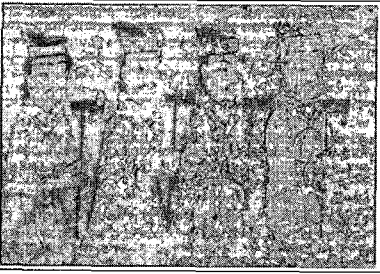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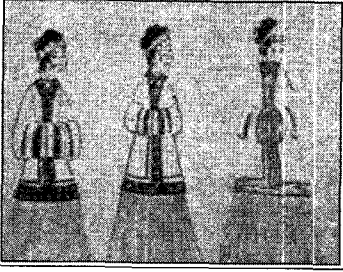
문헌기록에는 적색 또는 비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고분벽화인물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색상이다.

<그림 3>과 같이 적색을 사용한 예는 상류층의 의복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의복의 전체 또는 의복 중 상의류의 깃선, 하의류의 색동치마 등 부분적으로도 많이 사용했다.

의 부월수 등의 깃선, 쌍영총 부인들의 깃 및 수구선 등에 적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적색이 상류층의 복색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렇듯 실제로는 적색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적색은 어느 다른 색상보다 악귀방지, 병마 방지 등 주술적인 의미가 강하여⁴⁾ 예전부터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며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했던 색상이다. 그리고 <구당서>, <신당서>에 백제 관인을 16품관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모두 비의 또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예			
	쌍영총 주인부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Ⅱ, p. 73.	안악 3호분 주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36.	덕흥리 주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131.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예			
	안악 3호분 수레탄 주인(깃선),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53.	수산리 고분 여자 주인(치마),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195.	각저총 귀부인(포의 깃선),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52.

〈그림 3〉 적색이 상류층 의복에 사용된 예

의복의 전체에 사용된 예			
	안악 3호분 시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40.	덕흥리 고분 시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165.	덕흥리 고분 시종,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166.
의복의 부분에 사용된 예			
	장천 1호분 문지기,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01.	안악 3호분 斧鉞手,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Ⅰ, p. 45.	쌍영총, 한국의 복식, p. 35.

〈그림 4〉 적색이 하류층 의복에 사용된 예

는 강의를 착용했으며 평인은 비의, 강의를 금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으므로 고구려에서도 적색계열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청색 및 녹색

백제, 신라에서 청색은 적색 다음으로 높은 계층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구려에서 청색은 적색보다 높은 귀족계층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1>~<표 2>.

및 <신당서> 고구려조에 고구려 국왕은 오색찬란한 의복을 입고, 백라관을 착용하며, 대신들은 청라관, 그 다음 급의 관료들은 적라관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암리 고분벽화인물은 적라관을 사용한 관료로 볼 수 있으며 청색과 적색의 격자문양이 들어간 금직물의 의복을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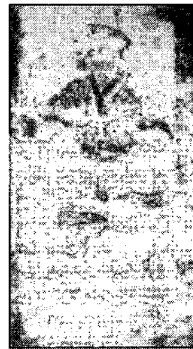
현존하는 벽화자료를 살펴보면 흑색과 청색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청색으로 단정하기 힘든 경우



동암리 고분 남자, 북한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 1, p. 242.



삼실총상류층부인,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66.



장천 1호분 문지기,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01.



장천1호분 과일따기 및 교예,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09.

<그림 5> 청색 및 녹색이 의복에 사용된 예



무용총 무용수,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30.



덕흥리 고분 시종,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 1, p. 166.



각저총 시녀,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53.

<그림 6> 황색이 의복에 사용된 예

동암리 고분벽화의 적색 관모를 착용한 남자 저고리에 청색과 백색의 격자무늬가 있으며 바지에 청색과 적색의 격자무늬가 있다<그림 5>. <구당서>

가 많다. 이 외에 흑색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본래의 색상이 청색인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녹색은 삼실층의 상류층 부인으로 보이는 인물과 장천 1호분의 문지기 및 과일 따는 시중, 시녀의복에서 볼 수 있다<그림 5>. 그러므로 녹색은 청색계의 색상으로 자색, 적색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계층이 사용했던 색상이지만 고위층의 여자신분에서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황색

황색은 조선시대 황제의복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색상으로 최고의 신분이 사용하는 색상이지만 백제와 신라에서는 비교적 낮은 관리들이 백색과 함께 사용하였음을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⁵⁾.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일반 남자들은 백색과 함께 황색을 사용했음이 기록에 있으며⁶⁾ 고구려 무용층 벽화에서 무용하고 있는 인물 및 하류층으로 보이는 신분의 의복에서 황색계의 색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민들이 즐겨 입었다는 갈의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⁷⁾. 그리고 문화원형관련 복식 디지털 콘텐츠개발 과제 중 <한국의 고유복식>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요 인물 의복의 색상을 분석한 결과를 NCS로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복이 Y20R~Y90R의 범위에 속한다⁸⁾. 이것은 황색바탕에 20~90%의 적색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으로 황색이 기본색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여겨진다.

5) 백색

문헌에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자연 그대로의 색상인 소색 및 백색의복을 착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⁹⁾ 벽화의 실증자료에서는 백색만 사용하여 의복을 표현한 예가 드물다. 백색의복을 착용한 예는 안악 3호분의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가장자리 선 장식이 된 소색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외는 백색 의복에 점문양이 있는 예가 대부분이다<그림 7>.

그러나 삼국이 대부분 공통된 색상을 사용했으며 신라인들이 특히 소색을 숭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색을 즐겨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백색만을 의복에 사용하기 보다는 옷깃 부위에 신분을 구별하거나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색의 천을 덧붙이거나 전체적으로 문양을 넣어 사용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6)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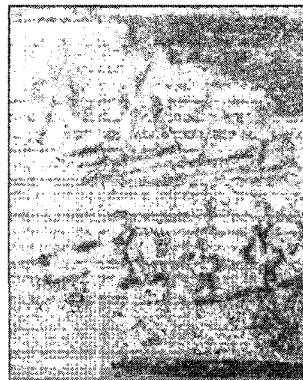
흑색은 주로 바탕색과 무늬색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며 대부분 의복의 가장자리 선 장식 및 문양에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6>~<그림 7>.

2.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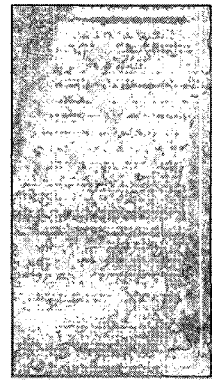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남녀복식의 색상은 침



안악3호분 부엌에서 일하는 시녀, 북한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 1, p. 70.



장천 1호분 무용수,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11.



장천 1호분 시중,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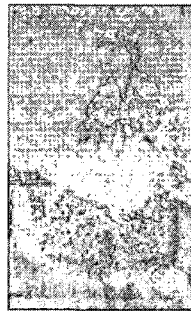
<그림 7> 백색이 의복에 사용된 예



◆, ● 문양
(무용총 주인공 및 시종),
한국의 복식, p. 11.



● 문양
(삼실총 귀족),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62.



◆ 문양
(각저총 귀부인),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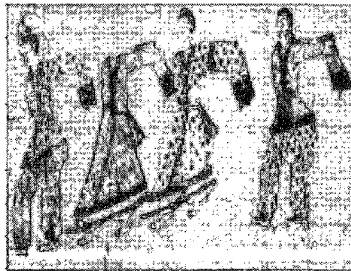


●, ∞ 문양
(안악 3호 부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 1, p. 39.

<그림 8> 남녀 귀족 의복에 나타난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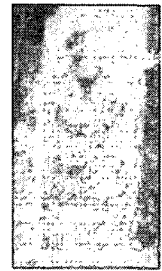
◆ 문양 (장천1호분),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07.



● 문양 (무용총),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30.



●, | 문양 (삼실총),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62.



◆ 문양 (장천1호분),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02.

<그림 9> 남녀 서민 의복에 나타난 문양

염법에 의해 단색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문양이 표현된 경우도 상당량을 차지하므로 이 시기 문양염 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오색금, 운포금과 함께 자지혈문금을 생산했다는 문헌기록으로 보아 자색바탕에 흰문으로 염색하는 것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실제로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을 볼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의복의 문양을 정리한 것이다. 의복의 색상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가장자리 선 장식을 한 예가 많으며 등근 점문양, 타원형문양, 물방울문양, 마름모문양 등 기하학적인 문양과 구름문양 등의 천지형상 문양이 사용되어 매우 세련된 이미지를 느낄 수 있

다. 그리고 바탕과 무늬가 확실히 구분되는 색 배합을 하였으며 이러한 색 조합으로 인해 문양 또한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귀족 남자의 의복은 대부분 유+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의는 단색, 하의는 마름모 등의 문양이 규칙적으로 배치된 옷감을 주로 사용했으며 귀족 여자의 의복은 대부분 유+상+포, 유+상+포+고로 구성되며 포에는 무늬가 없는 단색의 경우도 많았으나 점무늬 및 구름무늬 등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예도 있었다<그림 8>.

무용을 하거나 시중을 들고 있는 신분인 낮은 계층의 의복은 유+고, 유+상+포로 구성되며 유+고를 착용한 경우는 대부분 상, 하의 모두 점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유+상+포를 착용한 경우

는 포에 무늬가 배치된 예가 많다<그림 9>.

그러므로 귀족계급에서는 자색 혹은 비색에 가장 자리 선 처리된 단색의 상의와 무늬 있는 바지를 입는 예가 많지만 무용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시녀, 시종 등의 의복에는 상, 하의에 모두 무늬가 있는 의복을 착용하는 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수렵생활을 통해 식료 및 의료를 해결해 왔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흰 사슴, 흰 노루, 자색 노루 등 사슴류에 대한 사냥을 대대적으로 했던 기록이 있으며¹⁰⁾ 사냥에서 잡은 사슴들은 상류층에서 고급 가죽제품으로 사용하거나 고구려의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그림 10> 삼실총의 흰색 점무늬 사슴
(集安 고구려고분벽화, p. 181)

<그림 10>은 삼실총 벽화에 나타난 점무늬가 있는 사슴의 모습으로 이 시기 사슴사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등근 점무늬, 타원형 무늬, 물방울 무늬 등의 점무늬는 사슴무늬를 직조 및 염색기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상류층에서는 사슴가죽 및 다양한 색사를 사용하여 점무늬를 표현하는 錦織물을 사용하지만 일반인은 사슴무늬와 유사한 점문양을 비교적 간단한 염색기법으로 표현한 의복을 많이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하학적인 문양은 중국의 전국 초묘 채회용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그림 11>.



<그림 11> 중국 초묘 채회용에 나타난
기하학 문양
(심중문,중국고대복식연구, p. 27)

3. 염색기법

전반적으로 삼국시대의 염색기술은 크게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침염기법 외에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는 문양염의 기술이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염색기법을 인화염기법, 남힐기법, 선염기법, 채회기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화염(판염)기법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에서는 점문양, 타원형문양, 마름모문양, 구름문양 등 다양한 문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러한 문양의 표현은 직조 및 염색에 의해서 모두 가능하지만 염색에 의해서는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염색법 중에서는 점무늬 등의 일정한 문양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경우를 교힐염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¹¹⁾도 있고 인화염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¹²⁾도 있으며 직물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繪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상의 모든 염색기법으로 점문양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중국 집안의 박물관에는 마름모꼴무늬가 일정한 배열로 양각되어 있는 석판이 소장¹³⁾되어 있으며 집안지역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이 착용한 의복 중에 점문양 등이 많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인화판을 사용해서 도장을 찍듯이 문양을 찍어내는 인화염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물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繪와 대칭적인 문양 표현에 적합한 협힐은 고분벽화에서 보는 점문양 같이 동일한 문양이 단순 반복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적절한 염색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용수, 문지기와 같은 비교적 낮은 지위에서도 문양 있는 의복을 많이 입었던 점으로 보아 비교적 까다롭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납힐, 교힐, 협힐 방법보다는 인화염법에 의해 쉽게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염색법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납힐기법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부인들의 치마 형태는 오늘날의 기계 주름치마처럼 허리에서부터 치마단까지 일정한 간격의 주름이 잡힌 듯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12). 이러한 형태의 치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름이라는 봉제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되지만 납힐염법에 의해서도 이러한 표현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벽화에 나타난 주름 선 무늬를 나타내려면 천의 겉면에 납을 바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납을 긁어 준 다음 염색하면 굽힌 자리를 따라 염색이 된다. 염색 후 세척하고 건조시켜 천에서 납을 제거하면 납이 있던 자리에는 염색이 되지 않으면서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 효과를 얻을 수 있다¹⁴⁾. 이것은 세로 방향의

선을 후백, 적백의 대비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봉제기법 중 주름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옷감이 절약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치마의 선 표현이 주름에 의한 것인지 납힐염에 의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납힐염법에 의한 방법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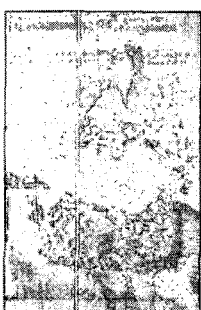
3) 선염기법

선염법은 실을 염액에 담가 먼저 염색을 한 후 직물을 제직하는 방법이며 이 시기 선염기법으로 인해 錦직물과 자수법의 발달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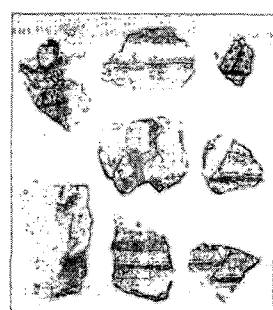
먼저, 錦직물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고급 견직물이며 다채로운 색상으로 염색한 색사를 사용해서 화려한 문양을 표현한 견직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錦직물을 제직했던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에서는 왕이 오색찬란한 비단옷을 입었으며 오색금, 운포금, 자지힐문금 등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신라 및 백제에서도 제직한 기록이 있는데 신라에서는 관영공장인 朝霞房을 설치하였으며 이 곳에서 朝霞錦, 朝霞紬 등을 직조하여 중국 당나라에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백제에서도 錦을 제직하는 工人인 安定那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韓錦 大和錦을 제직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 일본



각저총 부인,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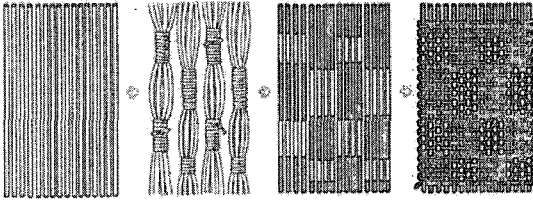
삼실총 부인,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p. 163, p. 164.



동임리 고분 부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고구려 1, p.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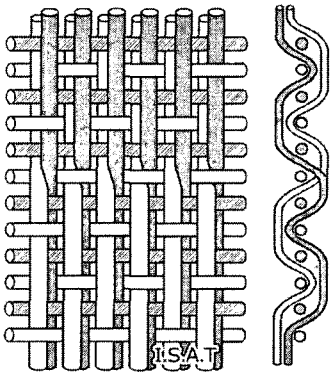
<그림 12> 납힐 기법이 사용된 예

錦織문화의 기원이 되는 등 일찍부터 발달하였다¹⁵⁾. 특히 조하주 등은 천을 짜기 전에 경사나 위사를 부분적으로 염색한 후 직조한 것으로 마치 안개가 서린 듯한 느낌을 주는 직물로서 이kat 직물과 같은 유형으로 생각되며 제직과정은 <그림 13>과 같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특산품이었던 조하주 역시 선염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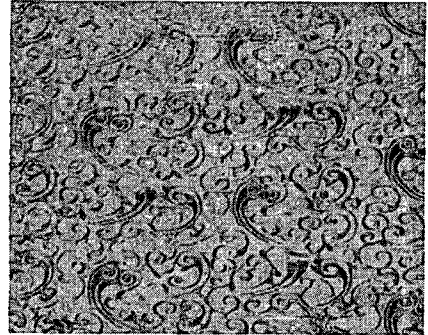


<그림 13> 경 이kat 제직과정
(심연옥, 한국직물 오천년, p.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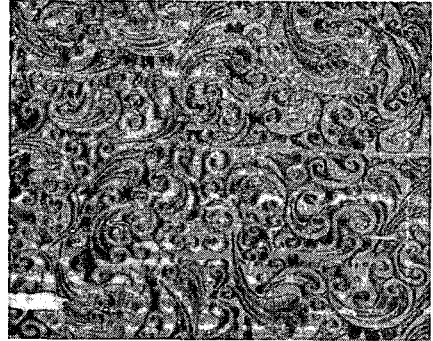
그리고 천마총에서는 신라시대의 경금직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직물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었던 점문양과 같은 둥근 점무늬가 있으며 적색, 청색 등의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그림 14>. 비록 이것은 신라의 유물이지만 동 시기 고구려에서도 오색금, 자지힐문금, 운포금 등 다양한 금직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문양이 있는 금직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4>의 금직물은 제직기법이 어렵고 그 당시 가장 고가의 견직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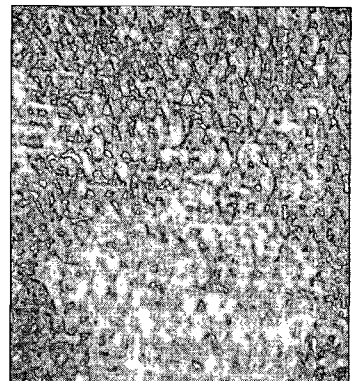
<그림 14> 천마총 출토 경금직물의 조직 및 확대도
(조직그림은 심연옥, 한국직물 오천년, p. 217)



<그림 15> 信期繡 烟色絹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편저, 中國歷代服飾, p. 65)



<그림 16> 長壽繡 黃絹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편저, 中國歷代服飾, p. 65)



통이 넓은 바지, 품이 넓은 저고리를 착용했던 귀족 계층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선염기법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한 견사를 사용해 자수를 놓음으로써 문양을 표현할 수 있었다. 공공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수법 또한 크게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안악 3호분 부인상의 의복에는 복잡한 문양을 세밀하고 리드미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사, 라, 견 등의 얇은 견직물에 선명한 색사를 사용하여 자수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참고>. 실제로 중국의 한대 유물 중에는 자수기법을 사용해서 이것과 유사한 문양을 표현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그림 15>~<그림 16>은 중국 한대 자수품으로 안악 3호분 부인상의 의복에 나타난 문양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채회 기법

채회 기법은 물감 용액을 붓이나 새털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천에 문혀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적어 주는 기법이다. 특히 신라인들이 素絹에 그림을 잘 그렸다는 기록 및 백제에서도 관인의 의복에 비색의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도 채회 기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4. 미적 특성

1) 대비배색 효과의 극대화

고구려 고분벽화의 의복에서는 다양한 색채 대비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의복 간 배색, 의복 내 배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복 간 배색을 보면 장유 등 긴 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복은 상, 하의가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백색과 흑색, 자주색과 황색, 청색과 적색, 적색과 황색 등 상, 하의의 색상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서 강한 색채 대비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의복 내 배색에서는 의복의 바탕과 무늬 색상간의 배색 및 의복의 바탕과 가장자리선의 배색을 들 수 있다. 먼저 문양이 있는 의복의 경우 대부분의 의

복의 바탕색상과 무늬 색상의 대비효과가 커서 무늬가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황색 바지, 흰색 저고리, 황색 포 등에 검정색 무늬를 표현한 경우이다. 즉 문양의 색상은 대체로 흑색, 적색, 흰색 등으로 나타나며 바탕색상은 이런 문양의 색상이 눈에 잘 띄게 하는 색으로 배색함으로써 바탕과 무늬가 현저하게 구별되어 강렬한 대비배색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깃, 쏘, 끝동, 치마단 등 의복의 가장자리에도 바탕천과 다른 색상의 선 장식을 하고 있다. 선 장식을 사용한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¹⁶⁾이 있지만 옷 길과 가장자리의 선의 배색 또한 뚜렷하여 강한 색채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다.

2) 적색 및 황색의 일반화

고분벽화 인물의 복식에 나타난 색상은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적색을 사용한 예가 특히 많다. 문헌에는 적색이 비색, 강색 등으로 표현되어 비교적 귀한 계층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벽화에서도 실제로 붉은 색은 귀한 자의 의복에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깃, 수구 등 부분적으로도 사용했으며 얼굴의 볼과 입술 부위에도 붉게 화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색은 상류층의 색상으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지만 고분벽화에서는 시종, 시녀, 문지기 등 하류층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의 복식에도 사용된 예는 많다. 이것은 실제로 고분의 벽화라는 특수한 양식에서 주술적 의미가 강한 붉은 색상을 사용한 것인지 실제로 하류층에서도 붉은 색을 사용했는지는 추후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지만 악귀방지, 병마방지 등 강한 주술적인 상징성을 가진 적색을 문헌의 기록에 나타난 용도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황색은 고구려 고분벽화 일반 남녀인물의 복식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색상이다. 서민들이 즐겨 입었다는 갈옷의 색상을 황색으로 표현했다는 학설과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이 착용한 의복의 색상 중 대부분의 의복이 황색바탕에 20~90%의 적색이 혼합되어 있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보아 이 시기 서민들의 의복에 황색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기하학적 문양의 선호

고구려 고분벽화 중 복식에 나타난 문양은 점문양, 마름모문양, 줄문양, 당초문양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점문양이 전체문양의 63%로 매우 많이 사용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며¹⁷⁾ 실제로 기하학 문양은 벽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 활발하게 진행된 수렵생활을 통해 사슴을 많이 사냥하게 되면서 사슴가죽의 점문양을 의복에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귀족계층에서는 사슴 가죽 및 점문양 등을 표현한 고급 견직물인 금직물을 사용한 반면 서민을 비롯한 비교적 낮은 계층에서는 인화염 혹은 채회 등의 2차 가공 기법으로 점 문양을 표현하여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4) 음양오행사상의 영향

음양사상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서로 대립되는 음과 양의 속성을 가지며 음양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존재한다는 이론이다¹⁸⁾.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색상에서 음양사상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상의와 하의의 배색, 의복바탕색과 무늬색의 배색, 의복바탕색과 선의 배색 중에는 백색(양)과 흑색(음), 적색(양)과 청색(음), 백색(양)과 자색(음), 황색(양)과 자색(음) 등의 배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것은 모두 음과 양의 색으로 구성되어 음양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과 양의 조화는 복식에 사용된 문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 5>, <그림 8>, <그림 9>에서 처럼 남자 의복에는 마름모 문양을, <그림 6>, <그림 8>에서처럼 여자 의복에는 둥근 문양을 사용한 것 또한 음과 양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둥근 형태는 양의 의미를 가지며 각진 형태는 음의 의미를 가지므로 남자(양)와 마름모 문양(음), 여자(음)와 둥근 점 문양(양)은 음과 양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오행사상은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 즉 화, 수, 목, 금, 토의 움직임으로 우주와 인간생활의 모든 현상에 대한 생성소멸을 해석하는 사상이다. 즉 화, 수, 목, 금, 토의 오행을 오행색 즉 적, 흑, 청, 백, 황의

색상에 연결시켜 해석한 것으로 기록에 보이는 삼국시대 의복의 색상 또한 오행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오행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¹⁹⁾. 오행 중에서도 상생의 관계인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즉 청색과 적색<그림 5>, 적색과 황색<그림 6>, 황색과 백색<그림 9>, 백색과 흑색<그림 7>, 흑색과 청색은 벽화에서 흔히 볼 수 배색이다. 그리고 상극관계인 청색과 황색, 황색과 흑색, 흑색과 적색, 적색과 백색, 백색과 청색이 함께 사용된 예도 간혹 볼 수 있지만 상생관계 배색의 예보다는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상극관계의 색상배색은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과 고분벽화를 통해서 고구려의 염색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구려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색상은 적, 청, 백, 흑, 황색의 오행색 외에 이들의 간색인 자주색, 녹색 등이다. 문헌기록에는 적색 및 자색을 상류층, 귀한자의 색상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계층에서 의복 전체 및 의복의 부분, 신체부위에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흑색, 황색, 녹색의 사용이 많았으며 청색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고분벽화사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가능한 예가 몇 점 없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고구려에서도 백색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백색의복에는 다른 색으로 문양을 표현하거나 가장자리 선 처리를 한 예가 많았다.

2.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의복은 침염법에 의해 단색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문양이 있는 예가 상당량을 차지하며 문양 중에서도 기하학적 문양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신분이 높은 귀족 계층에서는 상, 하의류 모두 문양이 있는 경우보다 하의류에만 문양이 있는 예가 많았으며 비교적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는 상, 하의 모두 문양이 있는 경우와 모두 문양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점문양이

크게 유행한 것은 사슴사냥 등의 수렵생활로 얻어지는 사슴가죽의 점무늬를 인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즉 귀족계층에서는 사슴가죽 및 점문양 있는 금직물을 사용했으며, 낮은 계급에서는 염색 등으로 점문양을 표현한 직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고구려에서 발달한 염색기법으로는 인화염, 선염, 자수, 납힐, 채회 등이 있다. 비교적 단순한 기하학 문양이 있는 직물들은 인화염으로 표현했으며 견사를 다양한 색사로 염색하여 제작하면서 문양을 나타내는 선염기법의 발달로 상류층에서는 금직물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얇은 견직물에 색사를 사용하여 수놓는 자수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외 납힐, 채회 기법 등으로도 의복에 문양 및 색상 표현을 하였다.

4. 고구려 복식에 사용된 색상이 지닌 미적 특징으로는 대비배색의 효과, 적색 및 황색의 일반화, 기하학적 문양 선호, 음양오행사상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상의류의 가장자리에는 길의 색상과 강한 대비배색 효과가 있는 색상으로 선 처리를 했다. 그리고 적색, 황색 및 기하학적 문양을 사용한 예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의복에서는 오방색을 중심으로 음과 양의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정호, 이미석 (2005). 고구려 벽화 의복에 관한 연구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벽화의 비교연구-. 복식, 55(3), p. 96.

2)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II, 고구려편.
조선일보사 (1993).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특별대전 (1995). KBS 한국방송공사.
양경애 (2004).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점문양 복식의 염색연구. 복식, 54(7).
이미석, 김정호 (2004). 고구려 고분벽화 문양과 침선 소품 개발에 관한 연구 -집안지역 고구려 고분을 중심으로-. 복식, 54(6).
금기숙 (2002). 고구려 복식의 미학적 연구. 복식, 52(3).
김정호 (1999).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과 사회계층.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삼국사기> 권 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27, 28년.
<삼국사기> 색복조 신라 법흥왕 7, 10년.

4) ①악귀방지(수렵에서 잡은 동물의 붉은 피를 몸에 바른다. 부적을 적색으로 적는다. 아들낳고 붉은 고추 매단다. 등지 때 붉은 깔물을 사방에 뿌린다. 등)
②병마방지(손톱을 붉게 물들인다. 위병 방지 위해 홍색염료를 밥에 넣어 먹는다. 등)

5) <구당서> 백제조, <주서> 이역열전 백제조, <수서> 동이열전 백제조.

6) <주서> 이역열전 고구려조, <북사열전> 고구려조, <수서> 동이열전 고구려조, <신당서> 동이열전 고구려조.

7) <신당서> 동이전 고구려조.

8) 이화여대 패션디자인연구소, 문화원형관련 복식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한국의 고유복식-.

9) <주서> 이역열전 고구려조, <북사열전> 고구려조, <수서> 동이열전 고구려조, <신당서> 동이열전 고구려조, <수서> 신라조, <구당서> 신라조, <북사> 동이전 신라조.

10) 삼국사기 권 45 열전 濫達傳.

11) 양경애 (2004).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점문양 복식의 염색연구. 복식, 54(7), p. 61.
이은창 (2000). 한국 복식의 역사(고대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62.
교힐염법 : 실로 직물의 일부분을 묶어 방염하는 기법으로 훤치기염이라고도 한다.

12)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4). 조선기술발전사 2 -삼국시기·발해·후기신라편-. 서울: 백산자료원, p. 68.
인화염법 : 목관 등에 문양을 조각하여 염료를 발라 직물에 찍어 바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

13) 심연옥 (2002). 앞의 책, p. 291.

14)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4). 앞의 책, p. 69.

15) 寺田商太郎 (昭和61년). やさしい織物の解説. 동경:纖維硏究社, p. 225.
錦은 금과 붓의 합자이며 그 가격이 금에 상당하는 붓이므로 금과 붓으로 하여 錦이라 적었다.

16) ① 주술적 목적 : 질병, 악령의 침입 방지
② 봉제구성상 목적 : 가장자리 울 풀림 방지
③ 인체보호목적 : 추위로부터 인체 보호

17) 김혜은 (1985). 고분벽화에 묘사된 복식조형의 미. 서울:이화여대 석사논문, p. 22.

18) 음양사상은 중국문명의 시작과 함께 비롯했고 오행사상은 춘추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사상으로 전국시대 말기 이후에는 융합되어 음양오행설이 되었으며 한대에는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천재지변을 중요한 조짐으로 보고 음양오행설로 해석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는 이미 보편화되었던 사상으로 볼 수 있다.

19) 음양오행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적색, 백색, 황색은 음에 해당하고 흑색, 청색은 양에 해당한다.